

김장훈 일행 광복절 독도 수영횡단 성공

가수 김장훈 일행이 광복절 아침 독도를 수영으로 횡단하는 데 성공했다.

김장훈과 배우 송일국, 밴드 피아(육요한, 혈령), 한국체육대 수영부 학생 40여 명은 경복을 진군 죽변~독도 간 직선거리 220km를 헬리어로 수영해 15일 오전 7시30분 마지막 주자가 독도에 입도했다.

지난 13일 죽변항에서 출정식을 갖고 오전 7시부터 수영에 나선 지 48시간 30분 만으로 당초 예상한 총 55시간보다 앞당겨 완주에 성공했다.

앞서 ‘아시아의 물개’ 고(故) 조오련이 2005년 두 아들과 함께 울릉도~독도를 횡단했고 2008년 독도를 33바퀴 헤엄쳐 돛 적은 있지만 유명인이 육지에서 독도로 횡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김장훈 횡단 팀은 모선(母船)인 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나호는 15일 오전 5시께 독도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

그러나 독도수비대가 2~3m 높이의 거센 파도를 이유로 선박 접안을 불허하자 김장훈 등은 고심 끝에 수영 실력이 뛰어난 한체대 학생 2명(정찬현·체육과 3학년, 이세훈·체육과 4학년)만 헤엄쳐 독도에 입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안전망도 없이 바다에 뛰어들어 극적인 성공을 이뤄냈다.

한나호에서는 김장훈과 일행이 부르는 ‘독립군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일행은 마지막 주자가 독도 땅을 밟는 순간을 지켜보며 서로를



광복절을 맞이한 15일 오전 독도 앞바다에서 가수 김장훈(앞줄 한기운데)과 한국체육대학교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죽변~독도간 직선거리 220km를 주간, 야간, 철야로 48시간 30분에 걸쳐 독도 앞바다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부둥켜안고 기뻐했다.

당초 전원이 독도 선착장에 오른 뒤 김장훈과 피아가 자축 공연을 열 예정이었지만 정박이 불가능해 취소되면서 선상 자축으로 대신했다.

김장훈은 “함께 독도에 들어가지 못한 건 아쉽지만 한체대 학생들이 대견하다”며 “우리 짚은 이들이 독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 3일간의 여정은 충분히 성과가 있었고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3일간의 대장정에는 난관도 많았다.

폭우와 거센 파도 등으로 선수들은 구토를 했고 일부는 저체온증으로 탈진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 안전망에 그물이 쳐 있었지만 틈새로 들어오는 해파리로 고충을 겪었다. 수영 대기자

를 안전 웬스까지 실어나르던 보트가 파손돼 행단을 중단할 위기에도 처했다.

수영 릴레이 첫 주자로 나선 김장훈도 공황장애가 재발했지만 링거를 맞으며 버텼고 한 차례 더 입수하는 강한 정신력을 보여줬다. 그는 지난 14일 배에서 생일을 맞기도 했다.

/연합뉴스

배우 송일국·한체대 학생 등

48시간 30분 220km 릴레이

CNN 등 해외언론 상세 보도

이번 횡단은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런던올림픽 축구대표팀 박종우의 ‘독도 세리머니’로 독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데다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미국 CNN은 지난 14일 “한국의 유명 록 가수가 동해(East Sea), 또는 일본해(Sea of Japan)에 있는 바위섬으로 해엄지 외교적 분쟁(diplomatic row)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또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 인터넷판도 ‘독도에 도착하면 ‘우리땅’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명백히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이다’라는 김장훈의 출정식 발언을 전했다.

임무를 완수한 김장훈은 동해해경 3천급 경비함을 타고 울릉도로 건너와 횡단 성과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었으나 공황장애에 제발로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강원도 동해 북호항으로 배를 돌렸다.

김장훈 소속사 관계자는 “북호항에 도착하면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해 진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김장훈 씨 일행이 탄 배가 울릉도 인근까지 왔으나 선박 접안이 어려울 정도의 파도로 벗벌미까지 겹쳐 공황장애 증세가 심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독도 횡단 성공 소식에 네이버의 응원도 이어졌다. 인터넷에는 ‘김장훈 씨가 진정 애국자네요. 빠른 완폐를 바란다’ ‘기부에서 시작해 이번 고행으로 보여준 김장훈의 나라 사랑은 이시대 귀감’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안재경 전남경찰청장, 화재 예방 경찰관 표창



인재경(맨 왼쪽) 전남 지방경찰청장은 최근 담당 경찰서 대전면 피출소를 방문해 순찰중 비닐하우스 화재를 예방한 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동부취재본부=정재근기자 jjg@kwangju.co.kr

순천박람회 조직위, 현장체험 학습장 이용 홍보



2013 순천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여수 히든베이 호텔에서 열린 전국교육장 협의회에서 정원박람회를 초·중·고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해 줄 것을 홍보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무안교육청 Wee센터 품성계발 체험캠프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석원) Wee센터는 최근 2박 3일 동안 전북 원주군 청정인성수원에서 수상레포츠 등 ‘품성계발 체험캠프’를 열었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광주 서구 따돌림·학교폭력 예방교육



광주시 서구는 지난 14일 서구 총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친구야 함께하자’라는 주제로 따돌림·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다. /광주시 서구청 제공

농협 광주본부 우리 농산물 애용 캠페인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 임직원 20여명은 최근 무등 경기장에서 광주농산물 브랜드인 ‘빛찬들’을 홍보하고 우리 농산물 애용 캠페인을 벌였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여수시 박춘걸 건축행정팀장 건축구조 공학박사 학위 취득



여수시의 한 공무원이 ‘석조 문화재의 구조적 보강’에 대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아 환희다.

그 주인공은 여수시 건축과 박춘걸 건축행정팀장(56)으로 그는 최근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건축구조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가 박사학위를 딴 논문은 ‘석조 문화재의 구조적 보강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조문화재가 외부 환경에 수백 년 동안 노출돼 석재의 풍화현상, 석재 적층의 불합리·불균등에 의해 균열과 변형이 발생되는 경우 신재로 교체하면 역사적 가치가 상실되는 국가지정 석조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 구조적 보강방법을 실험을 통해 규명했다.

/동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chkim@

고구려대학 이근광 교수

미용문화예술학회 초대회장 취임



고구려대학 이근광 뷰티미용과 교수가 대한미용문화예술학회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대한미용문화예술학회는 회원들의 개성을 발휘하는 다양한 미용문화예술분야의 연구와 경험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학술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한국 미용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동신중, 입학사정관제 대비 ‘동신희망캠프’

광주동신중학교(교장 정태환)는 2012학년도 진로교육 중점학교로 선정돼 최근 광주시 22개 중학교 1~3학년 79명의 학생들과 7명의 인솔교사가 참여하는 ‘동신희망캠프’를 실시했다.

학생들은 2박3일 동안 헬리드 검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입학 사정관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으며 장래의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탐색 활동과 발표 ▲3일 고려대학교 학과 탐방과 청소년들의 성장 뮤지컬 ‘지금해라’ 관람 등 2박 3일 동안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이뤄졌다.

학생들은 2박3일 동안 헬리드 검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입학 사정관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으며 장래의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정동현(광주동신중 3년)군은 “동신희망캠프를 통해 공주 한일고등학교를 가겠다는 막연한 희망을 구체화 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정호경(동신중 3년)군은 “2박3일 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학생들의 꿈을 구체화 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박병종 고흥군수 ‘지식경영인 대상’



박병종 고흥군수는 최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지식경영인 최우수기업 선정식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부문 ‘지식경영인 대상’을 수상했다.

박군수는 민선 4·5기 동안 군수 역임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추진했던 그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ijo@kwangju.co.kr

10년 열애 류승범·공효진 결별



연예계 대표적인 커플 배우 류승범(32)과 공효진(32)이 결별했다.

이들의 소속사 매니저먼트 숲은 15일 두 사람의 지난 4월 초 서로 협의 하에 결별했다고 밝혔다.

1980년생 동갑내기인 류승범과 공효진은 ‘화려한 시길’에 이어 2006년에는 영화 ‘가족의 탄생’, 2008년에는 영화 ‘다치마와 리’에 함께 출연했다.

도중에 한차례 결별을 한 적도 있지만 지난 10년간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왔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김세주·김성기씨 장남 성명군 최근학·오정열씨 차녀 은경여=19일(일) 오전 11시 50분 상무리초 컨센서웨딩홀 1층 아이비홀.

종친회

▲달성판서공파조 모수석=9월 4일(화) 오전 11시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령리 수동중학교(참여대상은 함양군민 및 배씨후손)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빛고을장학재단 올 268명에 장학금 2억 지급

(재)빛고을장학재단은 최근 광주시청 종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올해 광주지역 학생 268명에게 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단 이사장인 강운태 광주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2011년 장학사업 실적 및 결산안, 기본재산 변경, 2012년 장학사업 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장학사업은 국내 경기 위축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와 고용 불

안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해 보다 38명, 2000만원이 늘어난 총 268명(중학생 16·고등학생 172·대학생 80)에게 2억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의 종사자 자녀 12명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학금은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모집

▲배호 일자리모집 광주지부(지부장 정종원)=불새출의 가수 배호가 지난 6월 30일 ~ 9월 15일(토) 오전 6시까지, 주요 코스는 광주~남주연선~천연~양동 시장~남광주역~월드컵경기장~시청(5KM, 10KM, 34KM 선별) 광주생명의전화 223-9192, 232-9192.

▲무더위 부동산 축제 2012 재테크 성공전략 무료특강=17일(금) 오후 1시 30분 광주은행본점 대강당에서 1~2급 누구나 가능(교육비 및 교재비) 전액무료로 한국정보화진흥원 1